

현대중국어 虚词 ‘的’ 상(aspect) 자질 중한 대조 분석

한경숙*

【목 차】

1. 들어가며
2. ‘的’ 선행연구
3. ‘的’ 관련 통사구조와 상 자질 대조 분석
 - 3.1. ‘V+的’ 구조
 - 3.2. ‘V+的+O’ 구조
 - 3.3. ‘V+的, +Sen’ 구조
 - 3.4. ‘V+的+Aux’ 구조
 - 3.5. ‘V+Comp+的’ 구조
 - 3.6. ‘V+O+的’ 구조
4. 나오며

1. 들어가며

본고는 현대중국어 虚词 ‘的’를 통사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통사구조에 따라 ‘的’의 상 자질 유무를 중한 대조 분석할 것이다. ‘的’에 상응하는 한국어 통사구조를 대조 분석하여 두 언어에서 나타내는 의미 자질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설명적 타당성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런 대조 분석의 결과를 중국어 교육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언어는 두뇌세계를 구현해내는 도구이다. 이 두뇌세계는 현실세계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두뇌세계이든 현실세계이든 그 내용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어우러진 시공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세계의 ‘世’, 즉 시간은 술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의 ‘界’, 즉 공간은 주어 및 목적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¹⁾

*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연구조교수 (hks6779@hanmail.net)

1)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 2013b), 495쪽.

그렇다면 본고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的’는 문장에서 술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시간이 언어구조로 형식화 될 때는 다시 시제, 상, 양상으로 표현이 된다. 본고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的’는 비록 ‘了’, ‘着’, ‘过’의 상황과 달리 상 자질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아직도 학계에서는 논쟁이 매우 뜨겁지만, 근·현대중국어의 여러 문헌에서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사로 사용되고 있기에 ‘的’가 중국어의 시제, 상, 양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 상(aspect)과 어떤 관계가 있고, 한국어와는 어떤 대응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와 관련 통사구조를 통하여 면밀히 분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的’ 선행연구

‘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 품사를 4분법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3분법, 2분법으로 나눌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고, 그 다음은 ‘的’가 시제, 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어떤 품사로 귀속시켜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的’의 품사는 전치사(介词), 어미(语尾), 대명사(代词), 의미소(语素), 조사(助词) 등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자들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4분설’인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黎锦熙(1924)이다. 그는 ‘的’를 ‘特别介词’, ‘语尾’, ‘连接代名词’, ‘确定语态助词’ 등으로 나눴다. 그가 말하는 ‘确定语态助词’에서 ‘语态’는 상(aspect)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확정어기를 일컫는 것이다.

둘째는 ‘3분설’인데 이런 ‘3분설’은 또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朱德熙(1961)이고 그는 ‘的’를 그 앞의 단어(X)의 형태소로 보고 이런 형태소를 다시 ‘的₁ (이음절부사+的)’, ‘的₂ (형용사중첩+的)’, ‘的₃ (명사, 동사, 형용사+的)’로 나누었다. (나) 대표적인 학자는 邢福义(1996)와 张斌(2000)이고 이들은 ‘的’를 세 가지 조사로 보고 있다. 邢福义는 구조조사(结构助词), 준시태조사(상 자질), 어기조사 등 세 가지로 나누었고, 张斌은 구조조사(结构助词), 시제조사, 어기조사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두 사람의 견해차는 두 번째에 있는데 ‘的’를 邢福义는 상(aspect)의 개념으로 보았고 张斌은 시제(tense)개념으로 본 것이다. (다) 张国宪(1994)은 세 개 평면의 문법 이론에 근거하여 ‘的’를 통사적 기능, 의미 기능, 화용적 기능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셋째는 ‘2분설’인데 대표적인 학자는 吕叔湘(1942), 王力(1946), 孙德宣(1957), 丁声树(1961) 등이다. 이들은 ‘的’를 대체로 구조조사와 어기조사로 나누고 있다. 물론 어기조사 부분은 그 명칭이 다소 상이하고 작용도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的’²⁾가 상적 특징이 있다고 보고 선행연구를 기초로 현대중국어 ‘的’의 의미소와 관련 통사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본고의 논지를 전개해 보려고 한다.

2) 본고는 邢福义(1996)의 분류에 동의함으로 ‘的’를 3분하여 ‘的₁ (구조조사)’, ‘的₂ (시태조사 — 상 자질)’, ‘的₃ (어기조사)’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중국북경대학교 CCL語料庫 속의 현대중국어 ‘的’의 예문을 추출하여 분석하면서 본고의 논지를 전개해 보겠다. 본고는 ‘的’와 더불어 그 앞에 출현하는 동사도 함께 고찰해볼 것이다. ‘的’가 상 자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어기조사인지에 대하여 ‘的’의 통사구조에 대한 중한 대조 분석을 통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3. ‘的’ 관련 통사구조와 상 자질 대조 분석

현대중국어의 상표지로 쓰이는 조사 ‘了’, ‘着’, ‘过’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고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주장하고 있고 아직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이 상표지(动态助词)로 쓰이고 있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的’도 국내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학자들마다 ‘的’의 품사가 무엇인지, 상, 시제 등 표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고 아직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상 자질에 대한 고찰은 통사구조에 대한 고찰과 의미소 분석을 통하여 실현된다. 본고는 통사구조와 의미 전달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어 ‘的’와 관련하여 ‘V³+的’; ‘V+的+O’; ‘V+的+Aux⁴’; ‘V+的+Aux⁵’; ‘V+Comp⁶+的’; ‘V+O+的’ 등 여섯 가지 통사구조로 나누고, Chomsky(1981)의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과 장벽이론(Barriers)⁷에 근거하여 이들 통사구조의 수형도⁸를 그려볼 것이다. 각 구문 동사의 상 자질에 대한 분석을 수형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고찰하여 ‘的’의 상 자질에 대한 중한 대조 분석을 하겠다.

시제와 상의 문법범주 설정에 대한 논의가 시제 범주와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시제 상의 하위체계를 갖는 시제·상 체계를 세우거나 하여 정설화가 된 이론의 바탕이 마련되고 있지 않기에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범주 설정에 관한 불일치는 범주가 갖는 기능보다는 형태들이 갖는 의미의 규명에만 몰두한 결과 일 것이다.

3) ‘V’는 술어 동사를 나타낸다.

4) ‘Sen’은 앞 문장에 이은 다른 또 하나의 문장을 일컫는 것으로 ‘sentence’의 약자다.

5) ‘V+的+Aux’ 중 ‘Aux’는 ‘Auxiliary word’의 약자로 중국어 助詞를 일컫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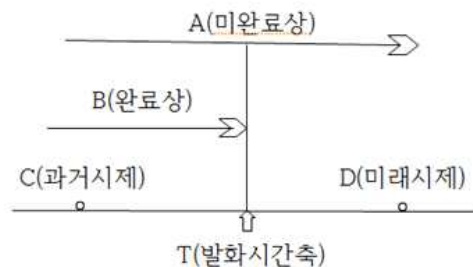
6) ‘Comp’는 ‘Complement’의 약자로 보어를 일컫는 것이다.

7) “Chomsky(1986)의 Barrier에 나타난 이론으로 ‘장벽이론’으로 불리는데 ‘지배결속이론’의 변화 발전된 이론이다. 이 장벽이론은 ‘X’_통사론’을 비어휘적 범주까지 확대하였으며 ‘X’_통사론’에 맞는 새로운 장벽개념을 도입하고 이 장벽개념을 통해서 지배개념과 하위인접조건을 통합하고 있다. 장벽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장벽: α가 β에 대해서 장벽이 되려면 ① α는 β에 대한 IP 이외의 차단범주(Blocking Category)이거나 ② α는 β에 대한 차단범주를 관할하는 첫 최대 투사범주이어야 한다. 장벽의 정의는 차단범주(Blocking Category)의 개념에서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 박영순, 『현대한국어 통사론』(서울: 집문당, 1997), 275쪽.

8)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성분의 약어는 다음과 같다. IP(Inflexion Phrase, 굴절구), NP(Noun Phrase, 명사구), VP(Verb Phrase, 동사구), AdvP(Adverb Phrase, 부사구), CP(Complex Phrase, 복잡구), I(Inflexion, 굴절소), V(Verb, 동사), N(Noun, 명사), Adv(Adverb, 부사).

따라서 본고는 일단 상 범주를 먼저 설정하고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虛詞 ‘的’의 용법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시제와 상은 모두 시간과 관계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동사들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혹은 상태변화는 시간적으로 그 시작과 끝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시제를 나타내며, 공간적으로 동작이나 상태 혹은 상태변화의 목적에 대한 완료냐 미완료냐 즉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되고 있는지에 따라 상 자질을 나타낸다. 시간적인 완료가 반드시 공간적인 완료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시제가 시간선 상의 외적 구성 즉 시간의 위치(時點)를 나타내고 있다면 상은 내적 구성 즉 동사의 동작이 어떻게 펼쳐지는가(時段)를 보여주는 것이다.

장호득(2000)은 상을 ‘시간의 공간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고도 그의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제의 기준 시점 설정도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제도 기준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화시간축 상의 과거시제와 완료상 그리고 미완료상은 그림(1)로 나타낼 수 있다. D는 현재시점인 발화시간축과 일정한 거리가 있기에 미래시제이고 ‘C’는 현재시점인 발화시간축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과거시제이며 ‘B’는 사건시가 현재시점인 발화시간까지 이어져 그 간격이 없기에 완료상이고 ‘A’는 발화시간축을 기준으로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미완료상이다.



그림(1) 중국어의 상과 시제

본고는 박덕유(2007)의 분류를 참조하여 상을 크게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눈다. ‘완료상’은 또한 그 하위범주로 ‘과거진행상(Past Conduct Aspect)’, ‘과거지속상(Past continuous Aspect)’⁹⁾ 그리고 ‘과거경험상(Past experience Aspect)’과 ‘成事相(Past continuous Aspect)’¹⁰⁾을 설정하고 미완료상은 그 하위범주로 진행상, 반복상, 예정상을 설정하겠다. 동사의 상

9) 본고가 중국북경대학교 CCL語料庫에 출현한 ‘的’에 대한 고찰에 의하면, ‘的’구는 총체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일을 묘사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과거진행’, ‘현재 이미 완성된 동작’ 그리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지속’ 등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에 ‘的’자구 중의 동사는 모두 지속성을 갖고 있는 ‘지속동사’다. 즉 ‘비지속동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완료상의 하위범주로 동작이 과거 어떤 시점에서부터 다른 한 시점까지의 진행을 ‘과거진행(Past Conduct Aspect)’으로 과거에 어떤 동작이 한 동안(혹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과거지속(Past continuous Aspect)’, ‘과거경험상(Past experience Aspect)’으로 설정하겠다.

10) “필자는 『논어』의 이 문장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것을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성사시키다’라는 개념에 대입시켜 ‘일을 성사시킨 후에도 다른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成事相’을 설정하였다.”,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

자질로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등을 설정하여 동사를 상태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순간동사, 이행동사¹¹⁾로 나눌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的’의 상적 특징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에 CCL語料庫 속의 예문을 선택할 때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되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등 상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심리동사, 행위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이행동사)가 들어있는 예문만 선택해 이런 동사 뒤에 위치한 ‘的’가 상적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 고찰해 보겠다.

이런 분석과 더불어 Chomsky(1981)의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그리고 장벽이론(Barriers)에 근거한 ‘的’ 관련 통사구조의 수형도 분석과 함께 ‘的’의 상 자질을 고찰해 나갈 것이다.

‘的’를 고찰함에 있어서 ‘的’가 조사 ‘了’, ‘着’, ‘过’와 같은 상적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만약 있다면 어떤 상적 특징이 있고 조사 ‘了’, ‘着’, ‘过’와 어떤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도 고찰하면서 동시에 ‘的’가 시제, 양상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며 ‘的’가 한국어의 어떤 상적 특징, 시제, 양상등과 대응되는지도 고찰해 볼 것이다.

3.1. ‘V+的’ 구조

‘V+的’ 구조는 술어의 뒤에 바로 조사 ‘的’가 출현하는 상황이다.

(1) 他昨天去的。(그는 어제 갔다.)

(1)중 ‘他昨天去的’는 ‘他去的’에서 확장된 구조로 술어의 앞에 ‘昨天’이라는 추가적인 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전달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시간 개념을 표현하는 역할체인 술어의 앞에 시점과 시간을 표시하는 시간부사를 위치시켜 시간 개념을 묶어주면서 시간의 열림 특성을 끝맺게 하여 ‘去的’가 가져다주는 정보전달의 미진함을 보완해주고 있다. ‘去(가다)’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의 자질을 갖고 있는 ‘이행동사’이다. (1)에서 ‘去(가다)’는 ‘昨天(어제)’라는 시간 속에서 동작을 완료했다는 뜻이 된다. 즉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昨天) 어느 시점부터 또 다른 어느 시점까지 ‘去(가다)’라는 동작이 펼쳐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기에 즉 ‘去(가다)’라는 장면이 분해되고 있는 동작의 내적 시간 구성이 있기에 동태조사인 ‘了₁’로 보여 진다고 판단된다. 다시 ‘他昨天去的’에서 ‘昨天’과 ‘的’를 빼보겠다. 그러면 ‘他去(그는 간다)’라는 말리 되는데 이 말은 지금 간다거나 미래에 간다는 뜻을 갖고 있다. 즉 조사 ‘的’를 추가함으로써 과거에 어떤 일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된다. ‘他昨天去的’에서 ‘去的’의 미진함은 V 술어 앞의 ‘昨天’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他昨天去的’의 수형도를 살펴보겠다.

한 대조 분석」(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 2013b), 499쪽.

11) 본고의 동사 분류는 박덕유(2013)의 분류를 참조하였다.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서울: 제이앤씨, 2013),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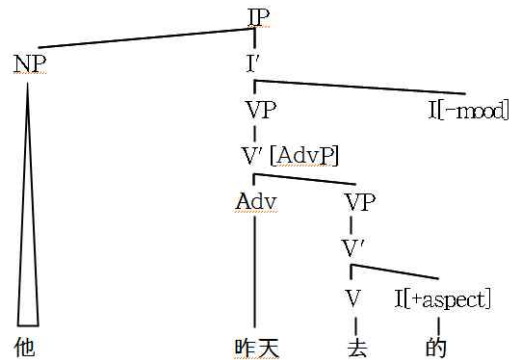


그림 (2) “他昨天去的” 수형도

위 수형도 (2)에서 조사 ‘的’는 술어 동사 ‘去(가다)’와 통어(command) 관계에 있고 V ‘去(가다)’를 다스리고 있다. Adv ‘昨天’은 ‘去的’ 전체와 통어 관계에 있고 ‘去的’를 다스리고 있다. 따라서 수형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的’는 동사 V ‘去(가다)’와 관계를 맺고 있는 통사상 제어관계에 있고 동사 V ‘去(가다)’의 완료상을 나타내준다. (1)은 정보 전달의 완성도가 높은 하나의 완전한 단문으로 문장의 끝맺음이 있는 구조이기에 ‘去的’는 한국어의 끝맺음을 표시하는 ‘갔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때의 ‘的’는 어미 ‘__었__’¹²⁾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한국어에서 시제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표지이다. 남기심·고영근(2014:313-322)은 시제를 발화시를 중심으로 앞뒤의 시간을 제한하는 문법범주로 보면서 시제를 현재시제, 과거시제, 미래시제로 나누었다. 그들은 또 과거시제를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시간표현으로 규정하면서 그 형태는 선어말어미 ‘__었__’ 등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__었__’이 양성모음 ‘ㅏ, ㅑ’로 된 어간의 뒤에서는 ‘__았__’으로 되고 어간 ‘하__’의 뒤에서는 ‘__였__’으로 교체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중국어 ‘V+的’ 구조 중의 ‘的’가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낼 때는 한국어의 과거시제의 ‘__었__’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V+的+O’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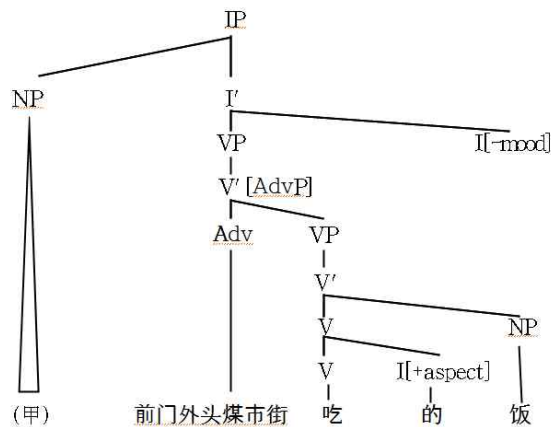
‘V+的+O’ 구조는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역할체 술어 뒤에 ‘的’가 오고 그 뒤에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다른 성질의 역할체 즉 목적어가 오는 구조이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구성된 구조는 문장의 완성도에 있어서 무언가 빠진 느낌을 주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기대하게 만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에서는 ‘__었__’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어미」((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1」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주었다./칠수는 이미 밥을 먹었다./작년 소풍날은 날씨가 좋았다.』「2」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구나./간밤의 비로 강물이 많이 불었다.』「3」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어미.『야,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날씨가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든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완책을 강구하여 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2) 甲：前门外头煤市街吃的饭。(甲이 대답하기를 (난)전문 앞 석탄 거리에서 밥을 먹었다.)

‘吃(먹다)’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의 자질을 갖고 있는 ‘완성동사’이다. (2)에서 ‘吃(먹다)’는 ‘지금 시점이 아닌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른 어느 시점까지’라는 시간 속에서 ‘吃(먹다)’라는 동작을 완료했다는 뜻이 된다. 즉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어느 시점부터 또 다른 어느 시점까지 ‘吃(먹다)’라는 동작이 펼쳐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기에 즉 ‘吃(먹다)’라는 장면이 분해되고 있는 동작의 내적 시간 구성이 있기에 동태조사인 ‘了₁’로 보여 진다고 판단된다. 다시 ‘前门外头煤市街吃的饭’에서 ‘的’를 빼보겠다. 그러면 ‘前门外头煤市街吃饭(전문 앞 석탄 거리에서 밥을 먹자.)’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은 지금 가서 밥을 먹는다가나 미래에 가서 먹을 예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즉 조사 ‘的’를 추가함으로써 과거에 어떤 일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前门外头煤市街吃的饭’이라는 문장은 뭔가 부족하고 미진한 느낌을 주는데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갑이 어떤 자의 물음에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V 술어 앞의 ‘前门外头煤市街’이라는 공간적 제약과 술어 뒤의 목적어 ‘饭’과 같은 공간적 제약, 그리고 문장 앞의 어떤 사람의 물음이 ‘前门外头煤市街吃的饭’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前门外头煤市街吃的饭’의 수형도를 살펴보겠다.



그림(3) “甲：前门外头煤市街吃的饭” 수형도

수형도 (3)에서 조사 ‘的’는 술어 동사 ‘吃(먹다)’와 통어(command) 관계에 있고 V ‘吃(먹다)’를 다스리고 있다. Adv ‘前门外头煤市街’는 VP ‘吃的饭’ 전체와 통어 관계에 있고 ‘吃的饭’을 다스리고 있다. 따라서 수형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的’는 동사 V ‘吃’와 관계를 맺고 있는 통사상 제어관계에 있고 동사 V ‘吃’의 완료상을 나타내준다. (2)은 정보전달의 완성도가 높은 하나의 완전한 단문으로 문자의 끝맺음이 있는 구조이기에 ‘吃的’는 한국어의 끝맺음을 표시하는 ‘먹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때의 ‘的’는 선어말어미 ‘__었__’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한국어에서 시제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표지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어 ‘V+的+O’ 구조 중의 ‘的’가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낼 때는 한국어의 과거시제의 ‘__었__’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V+的, +Sen’ 구조

‘V+的, +Sen’구조는 ‘V+的’ 구조 뒤에 완전한 문장이 하나 더 출현하는 구조다. 즉 ‘V+的’ 구조를 제한하는 조건이 앞과 뒤에 다 출현하든지 아니면 ‘V+的’ 구조 뒤에 다른 문장이 하나 더 출현하는 상황이다.

(3) 孙老元说：“这都五更了，他昨天去的，昨天听了一天戏，今天还要听一天，今天晚上吧！”

(손노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미 5경을 넘었다. 그는 어제 갔는데 어제 하루 종일 연극을 봤을 테고 오늘도 하루 종일 봐야 한다. 오늘 저녁에 (그를 만나는 게)어때?”)

(3)이 예문 (1)과 다른 점이라면 문장의 앞과 뒤에 다른 문장들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즉 ‘他昨天去的’의 불완전성을 그 앞과 뒤의 문장이 보충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去的’의 미진함은 V 술어 앞의 ‘昨天’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昨天’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술어의 앞에 위치함으로 시간 개념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시간의 열림 특성을 끝맺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他昨天去的’가 가져다주는 정보전달의 미진함은 그 앞의 시간적 제약인 ‘五更’과 ‘今天晚上’이 보완해주고 있다. 이때의 ‘的’는 우리말의 선어말어미 ‘__었__’+‘는데’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한국어에서 시제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표지이다.

3.4. ‘V+的+Aux’ 구조

‘V+的+Aux’ 구조는 ‘V+的’ 구조 뒤에 다른 조사가 다시 출현하는 상황이다.

(3) 请问，你在这方面又怎么做的呢？(실례지만, 당신은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4) A教授对此是怎么看的呢？(A교수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4), (5)에서 술어 ‘做’와 ‘看’은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의 자질을 갖고 있는 ‘완성동사’이다. ‘的’는 술어와 다른 조사의 중간에 위치한다. (4), (5)에서 ‘做(하다)’와 ‘看(보다/생각하다)’는 ‘지금 시점이 아닌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른 어느 시점까지’라는 시간 속에서 ‘做(하다)’와 ‘看(보다/생각하다)’라는 동작을 완료했다는 뜻이 된다. 즉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어느 시점부터 또 다른 어느 시점까지 ‘做(하다)’와 ‘看(보다)’이라는 동작이 펼쳐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기에 즉 ‘做(하다)’와 ‘看(보다/생각하다)’이라는 장면이 분해되고 있는 동작의 내적 시간 구성이 있기에 동태조사인 ‘了₁’로 보여 진다고 판단된다. 특

히 (5)의 술어 ‘看’은 시각적인 의미인 ‘보다’보다는 일에 대한 어떤 사람의 견해를 의미하고 있고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에 상태동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다른 한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심지에 향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그 뒤에 위치한 ‘的’는 미완료상의 하위범주인 진행상이고 우리말의 ‘__고 있다’로 번역이 된다. 이때의 ‘的’는 ‘__고 있__’이고 한국어에서 ‘__고 있__’은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을 나타낸다. 선어말어미 ‘__었(았)__’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__고 있었__’은 ‘진행상+과거시제’로 정리할 수 있다. (4)의 ‘的’는 동작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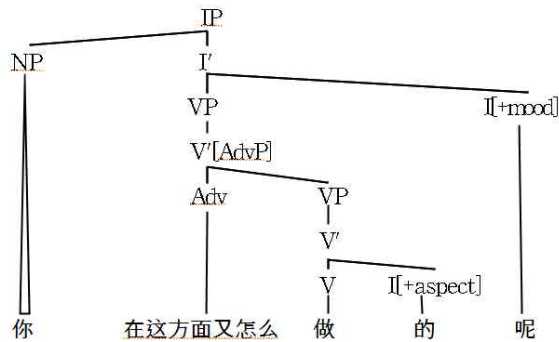


그림 (4) “你在这方面又怎么做的呢” 수형도

그림 (4)에서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한 조사 ‘呢’는 ‘你在这方面又怎么做的’와 통어 관계에 있고 전자가 후자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사어 Adv ‘在这方面又’는 V ‘做的’와 통어 관계에 있고 ‘的’는 술어 V ‘做’와 통어 관계에 있으며 ‘的’가 술어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的’는 술어 V ‘做’의 과거에 어떤 동작이 펼쳐짐을 타나내주고 있기에 완료라는 상적 특징을 갖고 있다. ‘做的’는 우리말의 ‘했다’와 ‘생각했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때의 ‘的’는 우리말의 선어말어미 ‘__었__’¹³⁾에 대응되기에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3.5. ‘V+Comp+的’ 구조

‘V+Comp+的’ 구조 중 본고가 고찰할 유형은 ‘Comp’가 ‘방향보어’이거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보어’일 때다.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보어’는 술어 동사의 시간과 관계가 없기에 본고에서는 고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V+Comp+的’ 구조는 다시 ‘V+Comp+的’와 ‘V+Comp+Comp+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V+Comp+的’ 구조를 보겠다.

(6) 我按规矩做完的。(나는 규정대로 다 했다.)

13) “과거시제를 표시하는 데는 선어말어미 ‘__었__’이 중복된 ‘__었었__’이 쓰이기도 한다.”,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4판)』(서울: 박이정, 2014), 319쪽.

(6)에서 ‘的’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做(하다)’라는 동작의 시작에서 끝마칠 때까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럴 때의 ‘的’는 ‘了₂’와 매우 흡사하다. 즉 ‘按规矩做完的’을 ‘按规矩做完了₂’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동작 시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보다 동작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런 변화를 현대중국어에서는 조사 ‘了₂’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

그럼 (5)에서 V’ ‘按规矩做完’과 I[-mood]¹⁴⁾ ‘的’가 통어 관계에 있고 후자가 전자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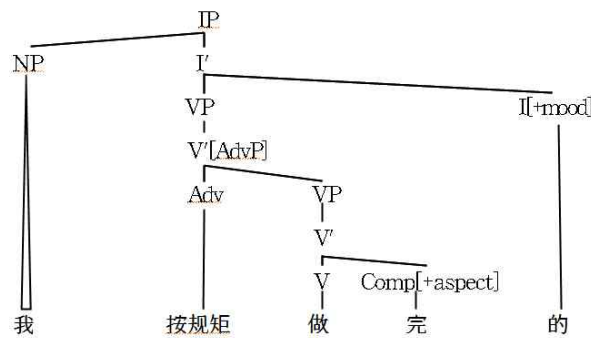


그림 (5) “我按规矩做完的” 수형도

다시 말하자면 ‘的’는 양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어기조사이다. Adv ‘按规矩’는 ‘做完’과 통어 관계에 있다. ‘做完’은 우리말의 ‘다 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즉 ‘做完’에서 Comp ‘完’은 상적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말의 ‘_였(았)’으로 번역할 수 있다. I[-mood] ‘的’는 V ‘做’라는 동작의 시작에서 끝마칠 때까지의 ‘按规矩做完’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이다. 즉 “我按规矩做完的”에서 상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Comp ‘完’이지 조사 ‘的’는 아니다. ‘的’는 우리말의 어말어미 ‘-다’¹⁵⁾로 번역된다.

(7) 两个外国人, 互相不懂对方的语言, 到底是怎样说起话来来的? (두 외국인이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지?)

14) “‘mood’는 국어에서 서법, 양태, 양상, 법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시상 자체의 양상에 관한 언어적 표현이 상[aspect]라면 우리의 주관적인 심리작용의 양상에 관한 언어적 표현이 서법이다.”,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서울: 제이앤씨, 2013), 82쪽.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에서는 어미 ‘_다’를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어미」1₁((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았-’, ‘-겠-’ 뒤에 붙어))해라 할 자리에 쓰여,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물이 맑다/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그분은 참 부지런하시다./아기가 잠을 오래 잤다./동생이 일 등을 했다./고향에 가 보는 것이 노인의 소원이었다./하늘을 보니 눈이 오겠다./약속을 꼭 지키겠다.2₁((주로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간접적으로 청자나 독자를 상정한 상황인 일기문이나 신문 기사의 제목 따위에서 과거의 동작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데 쓰는 종결 어미. 동생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관악산에 오르다/한국 축구, 세계를 제패하다.3₁((‘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이다’나 용언의 활용형 중에서 기본형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잡다/오다/작다/푸르다/계시다/이다/잡으시다/오시다/작으시다.

(7)은 ‘V+Comp+(O)+Comp+的’ 구조 중 목적어가 있는 구조이다. (7)에서 ‘V+Comp+(O)+的’ 구조 중의 Comp는 술어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음절 방향보어이다. 이음절 방향보어를 단음절 방향보어와 비교하면 그 방향성이 모호해져 대부분 파생된 의미를 나타낸다. ‘起来’를 보더라도 ‘起’는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방향보어이고 ‘来’는 ‘오다’라는 뜻의 방향보어이다. 그러나 이들 둘이 합쳐지면 ‘起来’가 되는데 그 뜻은 ‘일어나다’와 ‘오다’의 결합이 아닌 ‘시작하다’란 뜻으로 파생이 된다. 다른 이음절 방향보어도 마찬가지이다. (4)에서 ‘的’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说话(말하다)’라는 동작의 시작에서 끝마칠 때까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럴 때의 ‘的’는 ‘了₂’와 매우 흡사하다. 동작 시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보다 동작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런 변화를 현대중국어에서는 조사 ‘了₂’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 ‘说起话来’는 ‘V+Comp’ 구조인 ‘说话+起来’이지만, ‘说话’가 이합동사인 관계로 이음절 방향보어와 만나면 ‘说话’가 ‘说’와 ‘话’로 쪼개져 각각 이음절 방향보어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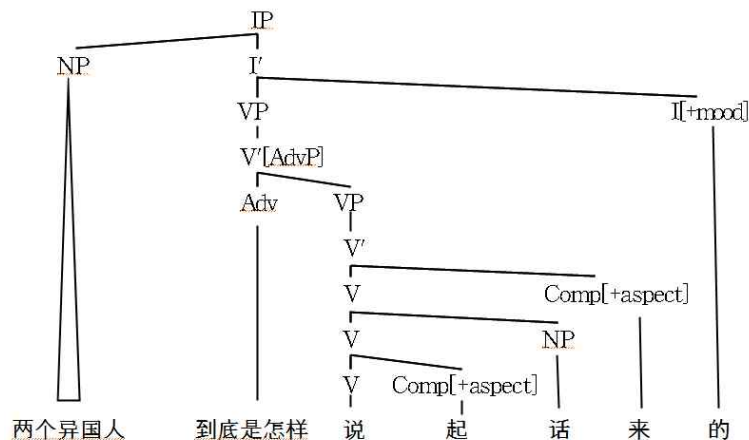


그림 (6) “两个异国人到底是怎样说起话来” 수형도

그림 (6)에서 Comp[aspect] ‘起’는 술어 V ‘说’와 통어 관계에 있고 전자가 후자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mp[aspect] ‘来’는 ‘说起话’와 통어 관계에 있고 ‘来’가 ‘说话起’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说起话’에서 NP ‘话’는 ‘说起’와 통어 관계에 있고 전자가 후자를 다스리고 있다. 이들 중 ‘起’와 ‘来’ 즉 ‘起来(시작하다)’가 상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说话(말하다)’라는 동작이 옛날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완성을 나타낸다. “两个异国人,互相不懂对方的语言,到底是怎样说起话来的?” 전체를 살펴보면 행동의 주체엔 NP ‘两个异国人’과 술어 ‘说话(말하다)’ 사이에 ‘互相不懂对方的语言’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술어 ‘说话(말하다)’의 시간적 관계를 제약하고 있어 ‘到底是怎样说起话来’의 완성을 높이고 있다. 이때의 ‘的’는 ‘到底是怎样说起话来’와 통어 관계에 있고 ‘到底是怎样说起话来’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때의 ‘的’는 ‘mood’의 개념이 되고 우리말의 ‘__었__’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시제범주에 속

하는 것으로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표지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어 ‘V+Comp+O+Comp+的’ 구조 중의 ‘的’가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mood’ 개념의 어기조사이지만 한국어에서는 과거시제의 선어말어미 ‘__었__’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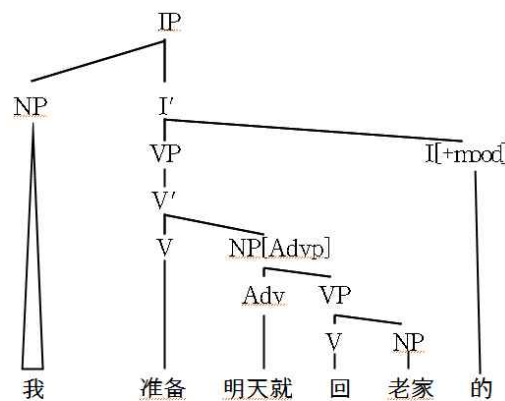
3.6. ‘V+O+的’ 구조

‘V+O+的’ 구조는 술어 V 뒤에 목적어 O가 위치하는 구조이다.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이합동사도 ‘V+O’구조로 보고 이합동사가 술어 위치에서 문장의 술어로 활용되는 예문도 ‘V+O+的’ 구조에 귀속시켜 이런 상황에서 ‘的’는 상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고찰해 보겠다.

(8) 现在刚刚跟朋友借了一点路费, 我准备明天就回老家。(지금 친구한테서 막 돈을 좀 빌려 내일 곧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9) 后来我妈妈跟我说,把我送到学校后, 我爸爸是一路哭着回家的。(후에 엄마가 알려주셨는데, 아빠가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는 돌아서서 울면서 집으로 왔단다.)

(8)과 (9)에서 술어 동사 ‘准备’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의 자질을 갖고 있는 행위동사이고 ‘回’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의 자질을 갖고 있는 ‘이행동사’이다. 그러나 ‘的’는 ‘准备明天就回老家’와 ‘是一路哭着回家’전체와 관계되는 조사이고 술어 동사 ‘回’, ‘准备’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고 있다. 즉 이때의 ‘的’는 ‘mood’ 개념이다. (8)에서 ‘的’는 ‘__것__’이라는 서법으로 번역할 수 있다. (9)에서 ‘的’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回’라는 동작의 시작에서 끝마칠 때까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럴 때의 ‘的’는 ‘了₂’와 매우 흡사하다. 동작 시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보다 동작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런 변화를 현대중국어에서는 조사 ‘了₂’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이때의 ‘的’는 선어말어미 ‘__었__’으로 번역이 되는데 한국어의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그림(7) “我准备明天就回老家的” 수형도

그림 (7)을 보면 ‘的’는 II[+mood] 개념이고 ‘准备明天就回老家’와 통어 관계에 있고 전자가

후자를 통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술어 동사 ‘回’는 그 앞에 위치한 시간부사 ‘明天’에 의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시제인 미래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的’는 ‘了₂’와 매우 흡사하여 우리말의 선어말어미 ‘__겠__’으로 번역이 되는데 미래시제의 표지이다.

다음 예문들을 다시 보겠다.

(10) 太不吉利了, 大过年的。(너무 불길하다. 지금 설을 쉬고 있는데.)

(11) 净开玩笑, 大过年的, 发啥神经要去打工。(농담 하지 마. 지금 설 쉬고 있는데, 무슨 정신에 아르바이트하러 가려고 하는 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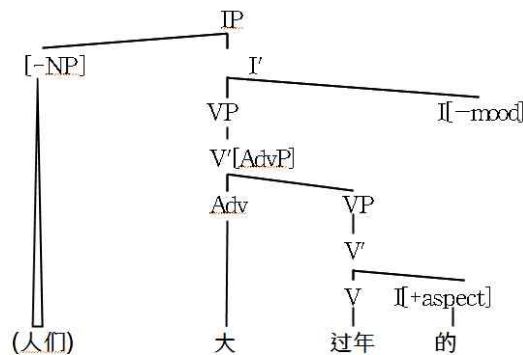


그림 (8) “大过年的” 수형도

(10), (11)은 (8), (9)의 상황과 다르다. 비록 이들의 구조는 모두 ‘V+O+的’ 구조로 서로 다르지 않지만, (10), (11)에서 ‘大过年的’ 중의 ‘的’는 현재 진행을 나타내고 있다. 즉 현재 설 기간이라는 뜻이 되겠다. 현재를 발화시간축으로 한다면 발화시간축을 기준으로 (10), (11)은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되기에 미완료상이다. 현대중국어에서 이런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동태조사는 ‘着’이다. 즉 이 두 구조에서 ‘的’는 I[+mood] 양상개념이 아니고 ‘着’와 유사한 상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같은 구조인데 하나는 I[+mood] 양상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상적 특징을 갖추고 있을까?

‘我准备明天就回老家的’을 보면 비록 술어 ‘回’가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의 상 자질을 갖고 있는 ‘이행동사’이지만, 술어의 앞에 ‘明天’이라는 시간사가 이미 술어의 실행이 미래 계획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문장이 문장 속에 문장이 있는 복문이고 중심 술어 ‘准备’(혹은 술어 앞에 출현한 조동사로 볼 수도 있다)가 이미 미래에 행해질 동작을 예상하고 있기에 이 문장에서 ‘的’는 I[+mood] 양상개념일 수밖에 없다. ‘我爸爸是一路哭着回家的’에서 ‘的’는 술어 앞의 ‘是’와 같이 ‘一路哭着回家’라는 문장 전체와 관계가 되는 수단을 나타내는 I[+mood] 양상 개념이다. 그러나 (10), (11)에서 ‘大过年的’를 살펴보면, 이 문장 자체는 하나의 동작의 지속이 아니라 설을 쉬는 기간 중 여러 가지 동작의 연속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단독으로 나타난다면 즉 다른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모국어 화자에게는 뜬금없는 말이거나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으로 느껴져 후속으로 이어지는 말을 기대하게 만든다. (10), (11)을 보더라도 문장의 앞이나 뒤에 다른 문장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11) 모두 ‘설을 쉬고 있는데(大过年的)’ 설 기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이고 문장 전체가 전환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过年的’은 원래는 ‘V+O+的’ 구조이었지만 현대중국어에서 ‘过年’은 이미 하나의 단어로 고정되었기에 통사구조는 원래의 ‘V+O+的’ 구조에서 ‘V+的’ 구조로 거의 문법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10), (11)이 (8), (9)의 상황과 달리 상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때의 ‘的’는 미완료상의 하위범주인 진행상이고 우리말의 ‘__고 있었다’로 번역이 된다. 한국어에서 ‘__고 있__’은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을 나타낸다. 선어말어미 ‘__었(았)__’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__고 있었__’는 ‘진행상+과거시제’로 정리할 수 있다.

4. 나오며

이상으로 본고는 중국어 조사 ‘的’ 관련 언어 구조 중한 대조 분석을 통해 ‘的’의 상 자질을 고찰해 보았고 중한 두 언어 사이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 현대중국어에서 ‘的’가 사용된 구문이 통사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통사구조와 의미 전달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어 ‘的’와 관련하여 ‘V+的’; ‘V+O+的’; ‘V+Comp+(O)+的’; ‘V+的,+Sen’; ‘V+的+Aux’; ‘V+的+O’ 등 여섯 가지 통사구조로 나누었다. Chomsky(1981)의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그리고 장벽이론(Barriers)에 근거하여 이들 통사구조의 수행도를 그려보았고 또한 수행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각 문장 동사의 상 자질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的’의 상적 특징에 대한 중한 대조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的’관련 구조	예 문	중국어 의미 범주	중국어 표지	한국어 의미 범주	한국어 대응표지
V+ 的	他昨天去的。	상 범주_완료(종결)	的 ₂	시제 범주_과거시제	_었_
V+ 的+O	甲:前门外头煤市街吃的饭。	상 범주_완료(종결)	的 ₂	시제 범주_과거시제	_었_
V+Comp+(O)+ 的	我按规矩做完的。	양상 범주_어기조사(변화)	的 ₃	종결어미	_다
	两个异国人,互相不懂对方的语言,到底是怎样说起话来?	양상 범주_어기조사(변화)	的 ₃	시제 범주_과거시제	_었_
V+ 的,+Sen	都五更了,他昨天去的,昨天听了一天戏,今天还要听一天,今天晚上吧!	상 범주_완료(일단락)	的 ₂	시제 범주_과거시제	_었+ _데
V+ 的+Aux	请问,你在这方面又怎么做的呢?	상 범주_완료(종결)	的 ₂	시제 범주_과거시제	_었었_
	A教授对此是怎么看的呢?	상 범주_미완료상(진행상)	着	진행상+과거시제	_고 있었_
V+O+ 的	现在刚刚跟朋友借了一点路费,准备明天就回老家的。	양상 범주_어기조사(변화)	的 ₃	시제 범주_미래시제	_겠_

后来我妈妈跟我说,把我送到学校后,我爸爸是一路哭着回家的。	양상 범주_어기조사(변화)	的 ₃	시제 범주_과거시제	_었_
太不吉利了, 大过年的。	상 범주_미완료상(진행상)	着	진행상+과거시제	_고 있었_
净开玩笑, 大过年的, 发啥神经要去打工。	상 범주_미완료상(진행상)	着	진행상+과거시제	_고 있었_

중국어 ‘的’ 관련 구문 중한 대조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어의 조사 ‘的’는 ‘상 표지(종결, 일단락, 진행)’와 ‘양상범주인 변화’ 등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등 의미범주와 통사구조로 활용되고 있지만, 한국어는 ‘시제(과거시제, 미래시제)’, ‘어미(종결어미)’ 그리고 ‘진행상+과거시제’ 등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통해 중한 양국의 시간 개념 즉 문장에 나타난 상 표지와 시제 표지를 살펴본 결과 두 나라의 상 체계, 시제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상체계가 조사와 보어(결과보어, 방향보어)를 통하여 구현되는 반면 한국어의 상 체계는 다양한 어미를 활용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어의 시제가 주로 부사어를 통하여 구현되지만 한국어의 시제는 부사어 외에도 선어말어미, 연결 어미 등 다양한 어미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중국어 교수법 연구에 반영된다면 보다 좋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서울: 태학사, 2009)
 남기삼·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4판)』(서울: 박이정, 2014)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서울: 제이앤씨, 2013)
 박영순, 『현대한국어 통사론』(서울: 집문당, 1997)
 장호득, 「현대중국어의 ‘沒’·‘有’ 및 相(aspects)」, 『중국어문학』, 35(영남중국어문학회, 2000)
 장호득, 「현대중국어 시간 개념의 범주화와 통사적 도출 연구」, 『중국문학연구』(한국중문학회, 50, (2013a)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的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 2013b)
 黎锦熙, 『新著国语文法』(北京:商务印书馆, 1924/1998)
 王 力, 『中国现代语法』(北京:商务印书馆, 1946/1984)
 吕叔湘, 『中国文法要略』(北京:商务印书馆, 1982)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北京:商务印书馆, 1984)
 邢福义, 『汉语语法学』(长春:东北师范大学出版社, 1996)
 孙德宣, 『助词和叹词』(合肥:安徽教育出版社, 2002)
 张 斌, 『现代汉语』(北京:新知识出版社, 1957/2000)
 张国宪, 「“的”字的句法、语义和语用研究」, 『淮北煤师院学报』, 2, (1994)
 朱德熙, 『语法讲义』(北京:商务印书馆, 1961/2000)

丁声树, 『现代汉语语法讲话』(北京:商务印书馆, 1961)

Chomsky, Noa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Dordrecht:Foris, 1981)

Chomsky, Noan, 『Barriers』(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8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중국북경대학교 CCL語料庫(<http://ccl.pku.edu.cn>).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한글	的, 상 자질, 대조 분석, 통사구조, 과거진행상, 과거지속상, 지배.결속이론, 장벽이론, 수형도, 통어
	영문	de(的), aspect features, comparative analysis, syntax, past conduct aspect, past continuous aspect,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GB), Barriers, The tree diagram, command.

Analysis of 'De' aspect features and comparison of modern Chinese function words

Han, Keung-Shuk

In this paper, through the relevant syntactic structure and semantic comparison of Chinese and Korean Studies on Modern Chinese function words "De(的)", "De(的)" was investigated whether has the character of aspect. Through the investigation discovery, Korean language in common and difference on time. In the concrete analysis, this paper also uses Chomsky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theory and Barriers theory, analyzes the tree diagram "De(的)" sentence, an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verb "De(的)" analysis, comparison of Chinese and Korean "De(的)" aspect fea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De' relevant syntactic structure	Example	Chinese semantic category	Chinese Markers	Korean semantic category	Korean Markers
V + 的	他昨天去的。	Aspect_perfective (finish)	的 ₂	Tense_past	_었_
V + 的 + O	甲:前门外头煤市街吃的饭。	Aspect_perfective (finish)	的 ₂	Tense_past	_었_
V + Comp + (O) + 的	我按规矩做完的 。	Auxiliary words of mood (Change)	的 ₃	Ending words	_다
	两个异国人,互相不懂对方的语言,到底是怎样说起话来来的?	Auxiliary words of mood (Change)	的 ₃	Tense_past	_었_
V + 的, + Sen	这都五更了,他昨天去的,昨天听了一天戏,今天还要听一天,今天晚上吧!	Aspect_perfective (wrap-up)	的 ₂	Tense_past_order	_었+ 는데
V + 的 + Aux	请问,你在这方面又怎么做的呢?	Aspect_perfective (finish)	的 ₂	Tense_past	_었었_
	A教授对此是怎么看的呢?	Aspect_imperfective	着	imperfective + Tense_past	_고 있었_
V + O + 的	现在刚刚跟朋友借了一点路费,准备明天就回老家的。	Auxiliary words of mood (Change)	的 ₃	Tense_past	_겠_
	后来我妈妈跟我说,把我送到学校后,我爸爸是一路哭着回家的。	Auxiliary words of mood (Change)	的 ₃	Tense_past	_었_
	太不吉利了,大过年的。	Aspect_imperfective	着	imperfective + Tense_past	_고 있었_
	净开玩笑,大过年的,发啥神经要去打工。	Aspect_imperfective	着	imperfective + Tense_past	_고 있었_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한경숙 / 韓京淑 / Han, Keung-Shuk
	소 속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Em@il	hks6779@hanmail.net
	주 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5년 4월 29일
	심 사 일	2015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2일